

빠트릭 크뤼리스 Patrick Crulis

프랑스 France

프랑스 르 샤텔레 거주 및 활동 Lives and works in Le Chatelet, France

동상 »

Bronze Prize

그곳이 없는 여기, 2014
도자
Huben Ohne Druben/Here
Without There, 2014
Ceramic
26 x 35 x 36

작품평

타테하타 아키라 "흙으로 표현되는 조형적 특징은 형태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작업을 통해 늘리고 구부리고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와 더불어 두툽한 유약 텍스처와 부드러운 색조가 특유의 따스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흥미롭다. 은근한 유머와 해학이 엿보이는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프레데릭 보데 "파리 보자르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는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도자기 공예가이다.

작가는 흙의 변형성, 색상의 유동성, 회화적 매력을 동시에 살려 전통적인 아방가르드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자 불신의 형태로 나타나는 비정형적 예술을 자신만의 퇴폐적인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유머와 놀이는 그가 구상하는 조각품들을 위태로운 길로 인도한다. 의도성과 우연성이 혼재하는 가운데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내버려 두는 쪽을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에 일어난 입체적 조각의 불안정화와 분열화 과정을 다루는 모리스 프레쉬레 Maurice Fréchet의 저서 '부드러움과 그 형태들'이란 제목이 빠트릭 크뤼리스 Patrick Crulis의 모든 조각품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품 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붕괴되고 녹아 내리는 혼돈의 세계에서 엄정성과 생명력을 놀라운 방식으로 되살리며, 끊임없이 재창조한다. 그의 도자기 작품은 2003년부터 최근까지 프랑스 내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방가르드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Commentary

Tatehata Akira "The characteristics of this artwork, which are expressed through porcelain clay, not only establish the form, but also elongate, bend, and transform the work through a kind of manual effort. It is also very appealing, in that a warm atmosphere is created through the work's somewhat plump glaze texture and soft color tone. It really is an artwork infused with a glimpse of humor."

Q&A

Q. 프레데릭 보데 작품의 소재나 색상 측면에서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고 혼돈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한 것 같은데요. 마치 조각 작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미국 화가 필립 가스턴 Philip Guston의 그림이나 만화에서 악랄스럽게 튀어나와 3D로 재탄생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품 제목을 통해 제한하고 있는 음악, 특히 프리 재즈나 즉흥 연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디에서 작품의 영감을 받았고, 입체적인 작품을 만들 수 없는 무형의 '시각적 표현'과 등가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빠트릭 크뤼리스 니콜라 드 스탈 Nicolas de Stael, AR 펜크 AR Penk, 장-미셸 바스키아 Jean-Michel Basquiat와 같이 재즈를 사랑했던 여러 예술가들은 이 음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인습 타파적이고 자유롭지만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이 작품의 걸라는 '대위법'의 거장이자 즉흥 연주에 능한 피아니스트 이렌느 슈바이츠 Irene Schwellitz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재즈와 도자기의 관계를 보자면 악보와 적힌 음악과 같은 밑그림, 조각가는 점토와 가마로 즉흥 연주를 하는 인데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조화를 이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협화음의 결과 작품은 표현이 풍부해졌고 일관성을 담게 되었습니다.

Frédéric Bodet "A ceramic artist who majored in painting at the École des Beaux-Arts in Paris, Crulis has been interested in many different art genres.

In this particular work, he explores art informel in an effort to express his struggle with and distrust of traditional avant-garde by highlighting the plasticity of clay, fluidity of colors, and painterly appeal in his own decadent manner. The humor and entertainment he seeks through art lead his sculpture down a dangerous road; he tends to give up forms rather than build something that embodies both intention and coincidence. This explains how Le mou et ses formes (The Soft and Its Forms), the title of the book in which Maurice Fréchet discusses the process of instability and disintegration of three-dimensional sculpture in the 20th century, is a title that perfectly describes all of his sculptural works. It is remarkable that Crulis

continues to revive and recreate impartiality and vitality in a world of chaos where everything melts down. His works are now widely regarded as some of the most unique and experimental pieces of ceramic art produced in France over the last decade."



박경순 "그 어디에서도 본적이 없는 형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개개인의 다양한 상상을 자극함으로써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가는 작품의 해석을 대부분의 다른 작가들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과는 달리 본인이 아닌 보는 이에게 맡김으로써 개인을 작업 속으로 끌어 들여 작품해석에 참여하도록 했다."

작가의 대담함이 느껴지는 계산되지 않은 형태와 거친 느낌이 마치 한 폭의 추상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장식을 최소화하여 단순하게 처리함으로써 제작과정의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색상 또한 형태에 어울리게 적절히 사용되어 작품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앤더스 루발트 "이 작품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언어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은 의미가 아니라 경험에 대한 것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려면 이 작품과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이 작품은 알 수 있는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개방되어 있고 생산적이며 재치가 넘친다. 단순히 점토판들을 서로 붙여 만든 것이 아니라 형태, 재료, 색상이 동시에 서로 같이 또는 따로 놀면서 만들어내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재치이다. 작가가 이 작품에서 유약과 색상을 다른 방식 또한 극히 신선했다. 작가는 복잡한 형태 표면을 따라 유약을 흘러내리게만 했을 뿐이다."

Kyoungsoon Park "It seems that we have never seen a shape like this before, so it evokes the viewers' imagination in their own way. By doing so, This sculpture leads the viewers to interpret it in many different ways. Unlike most artists, who give viewers one-way interpretations of their works, the

maker of this piece put interpretation of this work on individual viewers, not himself/herself and let them participate in interpreting *Huben Ohne Druben/Here Without There*.

The uncalculated shape and rough texture clearly show the artist's sense of adventure. It seems like an abstract painting. The decoration was minimized to construct the piece in a simple way, giving the viewers a sense of the speed of the production process. The colors used are appropriate for its shape, making this piece all the more noticeable."

Anders Ruwalds "Language seems an inadequate tool to use to make sense of the piece. This is not about meaning but experience. You have to be in the space with this piece for it to make sense. It lingers between the recognizable and the unfamiliar - it is open - ended and productively so. There is a lot of humour here. Not a slab-stick kind of humour but a kind of absurdist one where forms, material and colour work with and against each other simultaneously.

There is something extremely fresh about how this work embraces glaze and color. It simply lets it ooze down this complicated 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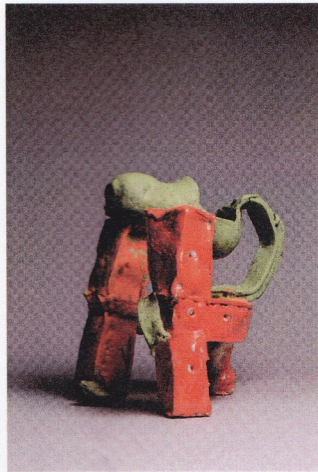
Q&A

Q. Frédéric Bodet I feel that your work, as well as its materials and colors, attempts to explore a state of chaos by avoiding stability, and seems unwilling to be classified as a work of sculpture. Your work also appears to me as a caricaturistic 3D work made from drawings, for instance, much like the cartoonish renderings of the American painter Philip Guston. However, what I don't understand is its relationship with music, free jazz, or musical improvisation, as suggested by the title. Could you explain a little more about how you were inspired to create this work, and why you regard it, a three-dimensional object, as an intangible 'visual expression'?

A. Patrick Crulis Some artist loving jazz, Nicolas de Stael, AR Penk, Jean-Michel Basquiat were inspired by this music in their creations *Huben ohne Druben* is a ceramic iconoclastic and free dissonant colors it refers to improvised music pianist Irene Schweizer virtuoso in the art of "contre point". The link between jazz and ceramics; preparatory drawing as written music, the sculptor executes the artwork, with the clay and the kiln improvising on the score, the trio plays together without always seeking harmony, the result is expressive and coherent.

나미타 위겔스 "별난 조각 작품이다. 군데군데 흘러내리는 흰색 유약과 방울처럼 뭉쳐있는 유약으로 완성된 작품으로 유약을 회화에서처럼 사용하였다. 받침대 위에 놓인 검소한 크기의 이 조각 작품은 기념비적인 성격이 아닌 자신의 존재감으로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이 작품은 여러 명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어떤 각도에서 보면 너무 납작해서 마치 이차원 추상 회화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둥근 유기체의 형태 같다. 이차원 회화를 삼차원으로 확대한 작품으로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흥미롭다."



Namita Wiggers "This sculpture is quirky. The application of the glaze

is painterly – complete with drips and blobs, and an occasional white dribble. Modest in scale, the sculpture holds and fills the space on a pedestal with presence rather than monumentality.

The work is different from every angle, and reminds me of the story about a group of blind men touching an elephant. This sculpture flattens from some viewing positions, looking like an abstract painting come to life, and roundly organic from others. It is a two-dimensional drawing expanded into three dimensions, and intriguing from every angle."

작가노트 조각의 거칠고 불안한 느낌은 불합리한 형태적 느낌을 준다. 이전에는 '결코 본 적이 없는' 인간 또는 동물의 형태가 갖든 표현주의적 조각을 만들어 내는 대답함을 보았다. 그 형태가 무엇을 본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곳이 없는 여기>[Huben ohne Druben/Here Without There]는 추상 스케치를 조각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불협화 색상은 즉흥 음악을 언급하는 것이며 작품 제목은 현대 재즈 피아니스트인 이렌느 슈바이처[Irene Schweitzer]의 작품에서 차용하였다.

Artist Statement Irrational forms of his offer violent and disturbing conjunctions. He gained the audacity to make "never seen before", to create expressionist sculptural visions, inclusion of human or animal forms, it is unclear....

Huben ohne Druben/Here Without There is a sculpture realized from an abstract drawing, its dissonant colors refers to improvised music, the title is borrowed from contemporary jazz pianist Irene Schweitzer.



조각가
학력 1991 파리순수예술대학교 혼합매체화학과, 프랑스
전시 2015 스타트(59)도자비엔날레, 프랑스 | 2015 파리11도자페스티발, 프랑스
소장 라피신 예술과 산업박물관, 루벤, 프랑스 | 프랑스티에 현대도자갤러리, 벨기에

Sculptor
Education 1991 Bac +5, Painting, School of Fine Arts in Paris, France
Exhibitions 2015 Biennale céramique de Steenwerck(59), France / 2015 Festival de céramique Paris 11, France
Collections Collections La Piscine, Museum of Art and Industry, Robaix, France / Frank Steyaert Gallery for Contemporary Ceramics, Belgium
www.cruisceramique.com

